

개인정보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품목 확대를 위한 국민생각함 참여 및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SNS를 활용한 실시간 컨설팅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지원사업'을 33개 품목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SNS 컨설팅 품목(최대 7개)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온라인국민 정책참여(국민생각함)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추진내용 :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신규 품목 개설 주요 조사
- 나. 추진기간 : 2018. 7. 27 ~ 9. 20.(8주간)
- 다. 추진방법 : 국민생각함 활용 (idea.epeople.go.kr)

- 붙임 1. 국민생각함 추진계획(벤처창업) 1부.
 2. 국민생각함 참여 방법 1부.
 3.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참고자료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 산하기관(농병), 소속기관(농을), 각 시도(나 01-18)

주무관 **허현해** 행정사무관 **배태현** 과학기술정책과전결 07/27
 장 이덕민

협조자

시행 과학기술정책과-2342 (2018.07.27.) 접수 식품정책과-21605 (2018.8.7.)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2461 /전송 044-868-0219 / hhh12@korea.kr / 대시민공개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신규 품목 개선을 위한 국민생각함 운영계획(안)

1. 추진 목적

-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현재 33개 품목이 컨설팅 대상
 - ‘국민생각함’으로 의견수렴하여 국민이 필요한 컨설팅 품목(분야)를 추가선정, SNS 컨설팅 성과를 지속 확대할 필요

2. 추진 내용

- 농식품 기술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발굴
 - 현재 운영되고 있는 33개* 분야 이외에 실시간 현장 컨설팅이 필요한 품목(분야)의 대국민 조사
 - * (원예) 고추,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참다래, 파프리카, 참외, 무, 사과, 단감, 감귤, 포도, 배, 버섯, 배추, 마늘, 양파, 인삼, 화훼, 복숭아
 - (축산) 한우, 돼지, 젓소, 염소, 닭, 오리, 곤충, 양잠
 - (식량) 벼, 콩 (기타) 스마트팜, 민간육종, 도시농업
- 농식품 기술 컨설팅 지원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현재 이용중인 농식품 기술 컨설팅 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규 지원 방법 발굴 및 문제점·건의사항 수렴
 - 온·오프라인 컨설팅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후속조치 방법 (R&D 등), 사업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발굴

- (실시기간) 2018. 7. 27. ~ 10. 18.(12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7. 7. 27.~ 9. 20.(8주간)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 (2단계) 생각의 발전 : '17. 9. 20.~ 10. 4.(2주간)
 -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데이터 정리 및 분석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10. 4.~ 10. 18.(2주간)
 -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채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검토

3. 홍보 계획

- 전 국민 및 관계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
 - 관계기관 참여 공문 발송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시,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SNS 등 게시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농업 기술 SNS 컨설팅 신규품목(최대 7개) 개설
 -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통한 신규품목 선정 및 밴드장, 운영위원 선출
- 신규 컨설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개선된 지원방향 및 유용한 아이디어는 '19년 사업추진방안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